



Issue Paper

KEC 정리해고의 진실

2012.02.21

한지원(연구실장)
jwhan77@gmail.com

요약

KEC 정리해고는 세 가지 점에서 정당성을 갖추기 어렵다.

첫째, KEC는 100억 임금삭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3천억 규모의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정리해고가 아니라는 직접적 증거다. 더군다나 현재 KEC의 복합판매시설 위주 개발 계획은 소매업에 대한 규정이 없는 ‘구미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위반하는 것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미공단 관련 고시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만약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련 고시를 변경한다면 이는 시민세금으로 정리해고를 지원하는 꼴이 될 것이다.

둘째, 2009년부터 이어진 KEC의 계속된 적자는 경영진의 이상한 경영행태로 발생한 일로 손실 부풀리기, 노조탄압, 홀딩스를 통한 KEC 자금 빼가기 등을 중단한다면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 계산상으로는 795억 누적적자를 45억 누적 흑자로 전환시킬 수도 있었다. 경영진은 2009년부터 대규모 외주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노사교섭으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았고, 회사 성장의 결정적 시기였던 2010년에 별로 참여하지도 않았던 노사 쟁점을 이유로 직장폐쇄를 단행했었다.

셋째,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임원진과 관리자들은 예전보다도 더욱 많은 급여와 혜택을 챙기고 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2009년부터 이사들의 급여는 천정부지로 인상되었고, 관리자들에 대한 대규모 승진도 계속되었다. 현재 KEC 노동자들은 업계 최하위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반도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KEC 사측은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관계당국은 KEC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KEC 경영진이 계획하고 있는 바는 “정규직 0% 공장”이다. 핵심 펌 시설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외주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구미 지역의 고용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며, 인근 공장에도 비정규직 확산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관계 당국은 KEC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고, KEC의 이러한 작태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

1. 들어가며

KEC 사측이 기어이 75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누적된 적자로 인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영상의 이유는 그야말로 핑계에 불과하다. 사측은 2010년 직장폐쇄 과정에서 보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노조를 현장에서 뿌리 뽑아내기 위해 갖은 수작을 펼쳐왔었다.

본 보고서는 KEC 사측이 구조조정과 민주노조 탄압을 위해 어떻게 회사 손실을 부풀려왔고, 광정소, 이신희 회장이 이 와중에도 얼마나 큰돈을 회사로부터 챙겨왔으며, 어용노조가 만들어 낸 KEC의 미래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리해고가 적법하지 않으며, 민주노조 재건만이 KEC 노동자들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2. 정리해고 통보 뒤 이어진 3천억 부동산 개발 계획

고용유지를 위한 100억은 없어도, 2,965억 부동산 개발 비용은 있다?

다른 모든 부분을 짓혀두고 KEC 정리해고의 부당성은 사측이 정리해고를 준비하기에 앞서 2,965억 규모의 부동산 개발 계획을 준비했다는 점에서부터 확인된다. KEC는 구미 공장 부지 절반을 이용해 복합판매시설(대형마트, 아웃렛 등), 호텔, 지식산업센터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지상 10층, 지하 2층 건물을 짓겠다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관련 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다. 개발 형태는 KEC와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몇 개 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KEC는 3천억 규모의 부동산 개발 여력은 있어도, 100억이 없어 정리해고와 대규모 임금삭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발 계획은 적법한 것일까? 아직까지는 불법이다. 올해 2월 10일 개정된 국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KEC가 위치한 1단지 입주대상업종은 제조업, 첨단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이다. KEC가 사업 계획 중인 복합판매시설(소매업)은 입주 대상이 아니며, 심지어 사업지원시설

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산단공의 관리계획 변경 계획, 국민세금으로 정리하고 지원하겠다는 건가?

이러한 불법 개발은 이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도 한 차례 큰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저가 의류 판매장 마리오 아웃렛이 대표적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공단에 위치한 마리오는 2001년 건물을 개축하며 극히 일부의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을 모두 의류 소매업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는 산업단지관리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은 마리오에 대해 산업단지 입주를 취소하였고, 마리오가 입주 취소에 대해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행정법원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마리오에 대해 입주기업 취소를 내린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이후 지경부는 이미 들어선 마리오 아웃렛을 어쩔 수 없이 허용할 수밖에 없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단지 입주 기업에 한해 면적의 50%까지 소매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변경했지만 이후에도 특혜시비는 그치지 않았다.

국가산업단지는 제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부지를 싸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세제혜택까지 부여하는 곳이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제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한 곳이다. 현재 산업관리공단이 KEC 부지 개발을 위해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관련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기도 한데, 정리해고를 자행하며 노조탄압을 일삼는 KEC에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은 시민 세금으로 정리해고를 하란 말과 다르지 않다.

2. KEC의 이상한 손익계산서

<KEC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년 1~9월	누적
매출액	2,884	2,874	3,061	3,452	2,222	14,493
영업이익	28	11	17	0.4	-53	3
순이익	26	-14	-184	-497	-126	-795

KEC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2007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누적 순손실액은 795억원에 이른다. 얼핏 보면 회사가 큰 경영위기에 빠진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제조업 기업이 제조와 관련하여 얻는 이익인 영업이익을 보면 2010년까지 매년 흑자를 기록했다. IC와 다이오드를 제조해 이익을 얻었지만 매년 영업외 활동으로 큰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특히 2009년부터 영업외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시작해 2010년에는 496억 원이 영업과 관련 없는 활동에서 발생했다.

KEC는 생산과 영업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활동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영업외비용으로 포괄되는 조업도손실, 유형자산감액손실, 재고자산폐기손실 등 보통의 제조업 기업에서 흔치 않은 항목과 지주회사와 연관된 영업비용 중 판매와 관리비에 포함되는 제수수료, 임차료 등의 항목이 KEC는 지나치게 높다.

3. KEC 순손실, 정리해고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KEC 경영진의 정리해고 명분은 경영 악화다. KEC 경영진은 작년 5월 말 금속노조 KEC지회가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하지마자 이런 수치를 근거로 노동자들에게 연 100억 원의 임금 삭감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고,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올해 1월 13일 166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그런데 ‘경영상의 이유’를 근거로 한 정리해고가 최소한의 법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측이 정리해고의 명분으로 삼은 누적된 손실액이 정말 회사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미치는 지 따져봐야 한다. 이번 KEC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제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먼저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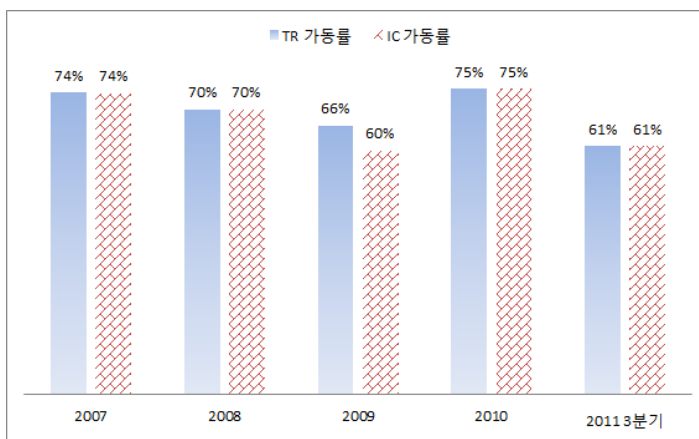
조업도 손실 279억, 전체 순손실의 35%

KEC가 계열사 합병을 통해 현재의 KEC와 같은 규모로 경영을 시작한 것은 2007

년부터다. KEC는 2007년, 2008년 2년 동안 매출액 5천8백억, 영업이익 40억, 순이익 12억을 올렸다. 최상의 수익률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회사를 경영할만한 수익이었다. 문제는 2009년부터 발생했다. 2009년부터 2011년 3분기 현재까지 계속 순손실이 발생했다. KEC 개별 기준으로 2009년 184억, 2010년 497억, 2011년 9월까지 126억 순손실이 발생했다.

문제는 2009년부터 발생한 순손실의 내역이다. 손익계산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KEC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조업도 손실’이다. 조업도 손실이란 유희설비의 감가상각비와 유희설비에 들어가는 고정비(인건비나 설비유지를 위한 전기비 등)를 의미한다. 즉 낮은 가동률로 발생하는 비용들이다. KEC의 조업도 손실은 2009년 136억원, 2010년 106억원, 2011년 3분기 현재 37억원에 이른다. 조업도 손실 누적액은 279억원으로 전체 누적 손실액의 35%나 된다.

2009년 상황을 보자. 세계경제위기로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KEC처럼 조업도 손실이 당기순손실의 74%를 차지하는 기업은 흔치 않다. 이런 조업도 손실의 당기순손실 비중은 2010년에도 21%에 달했고, 2011년 3분기에도 29%에 달했다.



유희설비와 관련된 비용인 조업도손실은 보통 가동률에 관계되어 있다. KEC의 가동률은 통상 70% 내외를 보인다. 2009년 세계경제위기로 가동률이 TR부분 66%, IC부분 60%로 하락했지만 2010년에는 6월 30일 이후 1년간 이어

진 직장폐쇄에도 불구하고 TR, IC부분 모두 역대 최고치인 75%를 달성했다.

그런데 2010년에도 조업도 손실이 106억 원을 기록했다. 노조 점거 파업과 직장폐쇄 기간 약간의 손실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이후 조업으로 대부분 회복되었다. 손실이 이렇게 클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또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실제 사측이 제시한 가동률 역시 과소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동률이라는 것이 생산 가능량 대비 실제 생산량으로 측정되는데, 생산 가능량을 현실과 동떨어져 크게 잡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생산 가능량을 현실적 생산 능력보다 크게 잡을 경우 가동률은 실제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

사실 KEC 당기순손실의 35% 가까이 되는 조업도 손실은 현금 유출입이 잘 잡히지도 않아 회계에서 고무줄처럼 줄이고 늘이기 쉬운 부분이다. 사측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없다면 없을 수도 있다. 대부분 조업도 손실이 크게 나는 경우는 공장의 이전이나 노후 설비의 대대적인 교체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¹⁾이다. KEC는 이러한 예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직장폐쇄, 노조탄압 비용 263억원. 전체 손실의 33%

KEC는 2010년에 노조 점거 파업으로 공장 설비가 손상되었다며 유형자산감액손실(기계 설비 등의 가격이 손실되었다는 것)을 153억 손익계산서에 반영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따르면 공장 점거 파업 시 조합원들의 규율 있는 행동으로 설비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점거 파업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아 공장이 정상가동 된 점을 보아도 이는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유형자산감액손실 역시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항목으로 고무줄처럼 쉽게 늘리고 줄일 수 있는 항목이다.

2010년에는 재고자산폐기 손실 역시 110억 잡혀있다. 재고자산 폐기손실은 직장폐쇄에 따른 손실로 우선 그 액수 평가에 문제가 있고, 또한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와 노조탄압으로 발생한 손실이라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한국전자홀딩스로 이전된 돈 298억원, 순손실의 37%

KEC가 적자를 계속 기록해도 걱정소, 이신희 회장의 공간은 비지 않는다. 한국전자홀딩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자홀딩스는 KEC를 비롯한 14개의 계열사와 4개의

1) 유한양행, 2006년 1분기 공장이전으로 조업도 손실 발생. 녹십자, 2007년 공장이전에 따른 조업도 손실. 하이스틸, 2010년 공장이전에 따른 조업도 손실 발생. 더블유스코프, 2010년 화재로 완전 가동 중단, 조업도 손실 발생.

투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다. 두 회장은 이곳을 통해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또한 이곳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

<한국전자홀딩스의 수입 내역>

(단위: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 3	합계
KEC	70	67	56	60	45	298
기타	17	32	16	26	25	116

2007년부터 한국전자홀딩스가 KEC로부터 거둔 수입은 총 298억이다. KEC 경영위기가 이야기되던 2009년부터 거둔 액수도 161억원에 달한다. 광정소, 이신희 회장은 KEC가 큰 위기에 빠졌다고 하면서도 2007년부터 2011년 3분기까지 KEC가 신고한 누적적자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전자홀딩스로 가져갔다.

한국전자홀딩스는 직원 7명에 상근 등기이사가 3명인 회사다. 이런 회사가 매년 계열사로부터 100억원 가까운 수입을 올리고 있다. 특히 KEC로부터는 50~70억원을 거두어들인다. 한국전자홀딩스가 KEC 등 계열사로부터 돈을 거둬들이는 명분은 임대료, 수수료, 이자 등이다.

민주노조탄압, 지주회사의 약탈만 없다면 기업 정상화

KEC 순손실의 재조정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자. 2007년부터 2011년 3분기까지 누적 적자액은 795억이다. 하지만 조업도손실 279억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고, 유형자산감액손실과

재고자산폐기손실은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인한 비용이며 액수 또한 상당액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 광정소, 이신희 회장의 사금고, 한국전자홀딩스는 이 과정에서 298억원을 KEC로부터 받아갔다.

이 모든 손실 액수는 정상적 상황에서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다. 만약 광정소, 이신희 회장이 여느 기업과 같이 민주노조를 인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KEC 경영을 정상화했다라면 KEC는 사실 45억 순흑자 상태로 반전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

즉 부풀려지거나, 발생하지 않아도 됐거나, 두 회장이 무리해서 자신의 잇속을 챙기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손실을 제외하면 KEC는 흑자 상태였다는 것이고, 사실 이러한 내용을 아는 사측은 계속되는 적자 속에서도 경영진과 관리자들의 잇속을 노동자들 모르게 계속 챙겨왔다는 것이다.

4. 노동자 임금은 하락, 임원 급여는 급상승

한편, 경영상의 이유를 근거로 구조조정 정당성을 주장하는 광정소, 이신희 회장은 그들이 주장하는 회사의 상황과 달리 여전히 높은 임원 급여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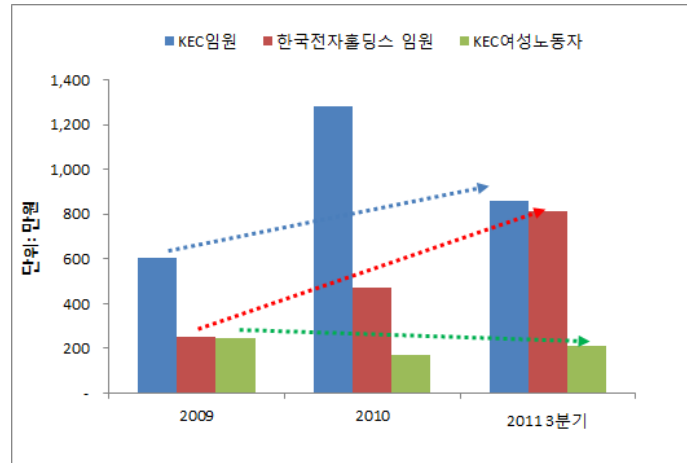
임원급여 41% UP, 노동자 임금 25% DOWN

KEC의 동기임원 평균 월급여는 2009년 607만원이었고, 직장폐쇄가 있었던 2010년에는 1천3백만원에 달했다. 그리고 2011년 3분기에는 2010년보다는 줄었지만, 2009년보다 41% 늘어난 860만원이었다. KEC의 지주회사인 한국전자홀딩스 역시 2009년에 비해 매년 임원 급여가 늘었다. 한국전자홀딩스의 임원 급여는 2009년 251만원이었지만 2011년 3분기에는 812만원으로 2년 동안 323% 급증했다.

반면, 이번 정리해고 대상의 대부분인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은 200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11년 3분기 2009년에 비해 15%가 삭감되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으로는 25% 가까운 하락이다. 임원 급여가 41% 늘어나는 동

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25%가 하락한 것이다.

그림 2 > 임원 및 여성노동자 임금 월급여



11개 법인에서 임원을 맡고 있는 이들의 임원 급여는 모두 얼마?

곽정소, 이신희 회장의 임원 급여는 물론 이 두 회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현재 곽정소 회장은 KEC, 한국전자홀딩스 외에도 티에스피에스, 케이씨암코, 멘토스 시스템을 비롯해 해외 법인 모두에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이신희 회장 역시 한국전자홀딩스 외 10개 법인에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성명	회사명	직책
곽정소 (대표이사)	주식회사케이씨	대표이사 회장
	주식회사케이씨디바이스	사내이사
	주식회사티에스피에스	사내이사
	주식회사한국전자홀딩스	대표이사
	주식회사케이씨암코	사내이사
	주식회사멘토스시스템	대표이사 회장
	KEC THAILAND CO., LTD.	대표이사 회장
	WUXI KEC SEMICONDUCTOR CO.,LTD	대표이사 회장
	WUXI KEC CO.,LTD	대표이사 회장
	ZHONGSHAN KEC SEMICONDUCTOR CO.,LTD	대표이사 회장
이신희 (대표이사)	주식회사멘토스시스템	사내이사
	주식회사케이씨암코	대표이사 사장
	주식회사한국전자홀딩스	대표이사
	WUXI KEC SEMICONDUCTOR CO.,LTD	사내이사
	ZHONGSHAN KEC SEMICONDUCTOR CO.,LTD	사내이사
	KEC THAILAND CO., LTD.	사내이사
	WUXI KEC CO.,LTD	사내이사
	KEC HK CORP. LTD.	사내이사
	KEC SINGAPORE PTE., LTD.	사내이사
	KEC TWN CO., LTD.	사내이사
KEC AMERICA CORP.	사내이사	

KEC와 한국전자홀딩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상장기업이 아니라 이들이 10여개 계열사에서 얼마만큼의 임원 급여를 받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만약 2011년 3분기 한국전자홀딩스의 임원급여인 월 810만원 정도를 모두 받는다면 이들의 계열사 총 급여는 최대 연 10억이 훌쩍 넘는다. 이는 한국홀딩스 임원 급여만큼 다른 계열사들도 임원 급여를 지불한다는 가정에서 성립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광정소, 이신희 회장이 보여준 경영 작태에 비추어보면 불가능한 이야기기도 아닐 것이다.

구조조정의 대가로 고위 관리직을 늘리나?

광정소, 이신희 회장은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동시에 관리 체계는 예전에 비해 매우 비대한 형태로 개편했다. 회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KEC는 2011년까지 운영되던 5팀, 21부, 37과 체계를 2012년부터 7팀, 23부, 44과 체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팀장 2명, 부장 2명, 과장 7명이 새로 늘어났다. 이는 금속노조 KEC 지회가 폭로한 바와도 일치하는데, KEC 지회는 정리해고 명단이 작성되며 동시에 약 109명 승진인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일반적으로 정리해고가 발생하면 회사 조직 체계도 좀 더 축소되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비용절감 목적의 인력 조정인 경우 관리체계가 이렇게 더욱 복잡해지고, 무거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경영진과 관리직이 좀 더 많은 이윤을 분배받기 위해 민주노조 탄압, 구조조정을 자행한 것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5. 2012년 기업 전망은 ‘맑음’, 노동조건은 ‘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KEC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해고는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경영진과 관리자들의 제 잇속 챙기기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 손실액을 부풀리며 경영위기를 조장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임원 급여 인상과 대규모 관리직 승진 축제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KEC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리해고의 긴박한 사유가 없을뿐더러 올해

여러 성장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먼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것처럼 태국 홍수로 인해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회사 측 주장에 따르면 이는 작년 매출의 5%에 해당하는 매출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요 원재료인 웨이퍼 가격도 작년보다 상승세가 한 층 꺾일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 신규투자 이후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한 MOS라인도 작년보다 약 30% 이상 많은 생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노동자 월평균 임금 (2011.3분기 기준)>

	근속연수	월평균임금
KEC	8.4	210만원
동부하이텍	5.2	244만원
삼영전자	4.1	211만원

또한 사측은 이미 2007년부터 300여명 가까운 인원을 줄였으며, 생산직(여성) 임금 또한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어 왔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KEC 여성노동자들은 근속연수는 가장 길지만 월평균 임금은 반도체 업체에서 가장 낮은 상태이다.

6. 대규모 아웃소싱을 위한 민주노조파괴

사실 KEC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벌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회사가 2009년부터 실시한 생산 외주화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외주화에 반대해 온 금속노조 KEC지회를 뿌리 뽑고 기간 회사가 준비해 온 외주화를 올해부터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KEC가 여러 이유로 순손실액을 부풀리고 있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민주노조를 현장에서 무력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다. KEC는 시장에서 주식거래량이 크지 않아 적은 부담으로 당기순손실을 높여 구조조정을 감행할 수 있는 조건이다.

KEC 구조조정은 사실 2009년 말부터 이미 거론되기 시작했고, 이는 2010년 상반기에 사측이 그다지 큰 건도 아닌 노조 전임자 수 1~2명을 두고 극단적으로 금속

노조 KEC지회를 몰아붙인 이유이기도 했다. 시장 상황에서만 보면 2010년 상반기는 KEC가 매우 빠른 속도로 매출을 증가시키던 시기로 굳이 노조와 극단적으로 대립 할 이유가 없던 시기였다. 증권사에서는 KEC를 삼성전기에 비유하며 2010년 최고의 매출과 이익을 예상하던 시기였다. 즉 정황상으로 보면 사측이 구조조정을 위해 애매한 항목으로 손실액을 늘려 잡기 시작했고,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과 KEC지회 탄압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KEC 사측의 올해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외주화다. 회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성과 측정 지표에서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도 외주화 성과다. 사내하청을 이용한 외주화와 KEC 물량을 해외 계열사로 이동시키는 외주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조립(Assembly)라인 외주화 규모는 작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다. IC, MOS, 다이오드 모든 부분에 걸쳐 외주화가 확대된다. 또한 전장 모듈 라인은 아예 모두 철수되 해외공장과 계열사인 TSPS로 이동한다.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펌 공장은 사정이 좀 더 나은 편이기는 하지만 저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외주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어용노조가 얼마전 회사 측과 3년 간 고용보장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부분 역시 매우 의미심장하다. KEC 사측이 세운 “제2의 도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이행기가 바로 2014년까지기 때문이다. KEC 경영진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를 구조조정의 시기로 설정하고, 외주화 확대를 구조조정기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측이 어용노조와 맺었다는 고용보장 협약도 믿을 수 없지만,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결국 3년간 외주화 과정에서의 인력 운영 계획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사실 얼마 전 어용노조가 이면합의로 무급순환휴직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항이라 할 것이다.

KEC의 이러한 계획이 노동조합의 견제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대부분의 생산직 노동자들은 매우 위험한 고용 불안에 내몰릴 것이다. 외주 확대에 따라 관리직들이 퇴직금 조로 라인을 위탁받아 생산을 하게 될 것이고, 현재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재고용되어 최악의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7. 나가며 : 어용노조는 모두를 파멸로 이끈다,

지난 해 어용노조가 조직되며 KEC 노동조건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어용노조가 교대제 개악, 임금 삭감, 고용안정 포기 각서를 사측에 내어주며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관리자들의 협박과 단기적 실리로 인해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어용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사실 불구덩이로 기름을 안고 뛰어든 것과 같다. 2012년 KEC 사업계획은 대규모 외주화 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조라는 브레이크가 없어진다면 사측의 외주화 계획은 더 빠른 속도로 더 광범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리해고 문제가 발생한 반도체 기업 시그네틱스의 사례를 잠시 보자. 시그네틱스는 2011년 초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하며 생산 라인 전체를 소사장제 시스템으로 재편했다. 200여명의 노동자가 모두 해고되었고 이후 이 노동자들은 임금이 아니라 생산량대로 성과를 받는 개인사업자가 되거나 퇴임한 관리직이 세운 하청회사에 기존 임금의 절반 정도를 받고 재입사하게 되었다. 민주노조가 현장에서 힘을 잃는다면 KEC 또한 이와 다르지 않게 될 것이며, 현재 어용노조가 합의한 안은 바로 2~3년 안에 KEC를 완전 외주화 공장으로 바꾸겠다는 안이다.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경영진과 관리자들과의 잇속 챙기기가 횡횡하는 KEC에서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관리자들을 대신해 민주노조를 뿌리 뽑고, KEC 노동자들을 모두 최악의 노동조건 속으로 내몰 어용노조 속에서 KEC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KEC 노동자들은 금속노조를 재건하고,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싸워야 할 때이다.